



# “호질: 창귀전설” 스토리 개요 문서

유경록

## 목차

---

목차 .....	2
1. 프롤로그 .....	3
2. 에피소드 1-1 - 나주성 .....	4
에피소드 1-2 - 무등산 .....	5

## 1. 프롤로그

---

1778년 (정조 2년), 15살이었던 주인공은 식인범 토벌에 나간 아버지를 잃게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의문의 사고로 그의 어머니마저 잃는다. 부모를 모두 잃게 된 주인공은 그가 살던 마을을 떠나 떠돌게 되는데, 그러던 도중 계룡산의 범계사에 몸을 의탁하게 된다. 범계사의 주지로부터 창귀와 식인범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주인공은 부모의 원수를 갚기 위해 절에서 무술을 갈고 닦는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1798년 (정조 22년). 주인공은 무과에 급제하여 장용영에 들어가게 된다. 벼슬을 받게 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 왕은 주인공을 은밀히 불러 착호감사로 임명하며 나라를 어지럽히는 식인범 퇴치 임무를 부탁한다. 주인공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부모의 원수를 갚기 위해 그의 고향 나주성으로 떠나게 된다.

## 2. 에피소드 1-1 – 나주성

---



오랜만에 고향에 돌아온 주인공이었지만, 그를 알아보는 사람은 없었다. 나주성의 성주 김헌수는 전대 성주의 아들인 주인공을 냉대하며 주인공과의 대화를 거부한다. 주인공은 어쩔 수 없이 20년 전 그의 아버지와 함께 식인범 토벌을 떠났던 사람들이 모여 만든 마을로 발걸음을 옮기게 된다. 그곳에서 주인공은 아버지의 의형제였던 촌장 조항을 만나고, 창귀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된다. 창귀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 야생 동물들을 사냥하던 중, 주인공은 마을 사람을 해하려는 창귀의 단서를 얻게 된다.

마을로 돌아온 주인공의 앞에 떠돌이 돌쇠가 나타나고,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 돌쇠를 쫓아가던 주인공은 상반신은 사람, 하반신은 호랑이인 정체모를 무언가와 마주하게 된다. 주인공은 정체모를 무언가를 곧바로 공격하지만, 돌쇠에 의해 가로막힌다. 곧이어, 정체모를 무언가는 스스로를 백씨 성의 착호갑사라고 소개한다. 식인범을 퇴치하겠다는 주인공의 말에 백씨는 흔쾌히 도움을 주겠다고 말하며, 그가 활동하며 얻은 지식을 언제든지 공유해주겠다고 말한다.

마을 사람들의 부탁을 들어주고 창귀들의 계획을 저지하며 그들과 싸우는 과정에서 주인공은 지금까지 만난 것들과는 다른 창귀를 마주하게 된다. 한편, 주인공의 활약을 들으며 위협을 느끼던 성주 김헌수는 주인공을 성으로 불러 문책하고, 주인공을 마을 사람들을 선동한 죄로 옥에 가둔다. 그날 밤, 나주성에 기괴한 일이 발생하고, 성주 김헌수의 호위들이 목숨을 잃는 일이 발생한다. 신변에 큰 위협을 느낀 김헌수는 주인공에게 호위를 부탁하게 되고, 기괴한 일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되는 식인범을 퇴치할 것을 제안한다.

주인공과 김헌수를 비롯한 소규모의 부대는 식인범의 서식지로 추정되는 무등산으로 떠나는데, 창귀의 계략으로 인해 주인공과 김헌수 무리는 흩어지게 된다. 산을 떠돌던 주인공은 동굴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쓰러진 김헌수를 발견한다. 그 순간, 주인공은 엄청난 귀기를 내뿜는 창귀를 마

주하게 되는데, 곧 그 창귀가 그의 아버지임을 알게 된다. 창귀로 변한 아버지를 쓰러트리고 부모를 식인범의 저주에서 풀게 한 주인공은 다시 한번 나주성을 위협하는 식인범을 잡겠다고 다짐한다.

## 에피소드 1-2 – 무등산

---

성주 김현수는 창귀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구해준 주인공을 은인으로 여기며 주인공에게 아낌없는 도움을 줄 것을 제안한다. 제안을 받아들인 주인공은 김현수에게 식인범을 퇴치할 것을 말하고, 김현수는 흔쾌히 주인공에게 자금을 지원한다.

한편, 다시 나주성에 창귀의 계획에 의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고 이번에는 마을의 백씨 아씨가 그 표적이 된다.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창귀의 행동에 고전하던 주인공은 착호갑사 백씨를 찾아가게 되고, 그의 도움을 받아 백씨 아씨를 구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착호갑사 백씨가 백씨 아씨의 조상임을 알게 되고, 백씨 가문에 이어졌던 호식당할 운명이 착호갑사 백씨로 인한 것이었음이 밝혀지게 된다. 주인공은 백씨 가문의 저주를 풀기 위해 식인범을 퇴치할 것을 다시금 다짐한다.

백씨 아씨 사건 이후 몇 주가 지나, 나주성의 산군 토벌대의 준비가 끝나고 주인공과 산군 토벌대는 무등산으로 떠난다. 무등산에서 식인범의 흔적을 찾으며 위치를 추적한 주인공은 마침내 산군의 위치를 특정하게 되고 마침내 나주성에서의 최후의 싸움에 임한다.

마침내 식인범을 쓰러뜨린 주인공은 착호갑사 백씨와 작별인사를 한다. 성불한 백씨를 뒤로 하고 성으로 돌아온 주인공은 환대를 받는다. 주인공은 김현수에게 식인범 퇴치를 보고하고 한양으로 발걸음을 옮긴다.